

女핸드볼, 세계선수권 8강 도전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에서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 출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 대회 참가 앞서 카메룬·프랑스와 두 차례 연습경기

한국 여자핸드볼이 14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8강 진출을 노린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1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에서 열린다.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호흡을 맞춘 박재영(삼척시청), 정진희(서울시청), 신은주(인천광역시청), 류은희(교리 아우디 BTO) 등 10명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을 신인급 선수들이 포함됐다. 최근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경남개발공사 지명을 받은 김세진과 1라운드 2순위로 서울시청의 지명을 받은 조은빈이 세계 무대에 도전한다. 또 지난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에 있던 이혜원이 대표팀에 합류했고,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에 출전했던 신진미(부산시설공단), 우빛나(서울시청)가 힘을 보탠다.

이번 대회에는 총 32개국이 출전한다. 4개국씩 8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상위 세 팀이 본선 라운드에 진출한다. 여기서 6개국씩 4개조로 다시 나뉘어 본선 라운드를 갖고, 각 조 상위 두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그린란드, 노르웨이와 C조에 편성됐다. 한국시간으로 30일 오스트리아와 첫 경기를 치르고, 12월2일 그린란드, 4일 노르웨이를 차례로 상대한다. C조 예선을 통과하면 프랑스, 앙골라,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가 속한 D조의 상위 세 팀과 본선 라운드를 치른다. 1957년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199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1978년 제7회 대회부터 이번까지 20회 연속 출전하고 있다. 1995년 오스트리아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1997년 5위, 2003년 3위,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 (사진=대한핸드볼협회 제공)

2005년 8위, 2007년, 2009년 6위로 꾸준히 8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후 8강에 오른 적이 없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8강을 노크한다. 직전인 2021년 대회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가운데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일정을 갖는다. 대회 참가에 앞서 프랑스를 둘러 카메룬, 프랑스와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결전의 땅 노르웨이에는 27일 입성할 예정이다. /뉴시스



공 하나, 세 다리 잉글랜드의 리코 루이스(오른쪽)가 20일(현지시간) 북마케도니아 스키프의 토세 프로세스키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2024 조별리그 C조 북마케도니아와의 최종전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피파랭킹 4위 잉글랜드는 66위 북마케도니아의 자책골로 간신히 1-1 무승부를 거두며 조 1위(승점20)로 예선을 마쳤다. /뉴시스

K리그,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서' 발간

국내 스포츠 단체 첫 시도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K리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스포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구단별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분데스리가는 올해부터 리그 차원에서 전 구단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시작한 바 있다. K리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서는 연맹과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21년 선보인 'K리그 그린리포트'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K리그 그린리포트는 친환경 리그 조성을 통해 축구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환경 캠페인이다. 탄소 저감 및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연맹이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캠페인을 통해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K리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서' 발간은 현재 구단들의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25개 구단 중 9개 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측정은 ΔScope1(구단이 직접 소유 및 운영, 관리하는 시설, 장비, 차량 등의 화석 연료로 인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ΔScope2(구단이 구매한 전기, 열 소비 등에서 배출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ΔScope3(구단의 활동 결과로 발생하지만 구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로 총 3가지로 분류됐다. 보고서에서는 Scope1, 2의 측정량을 담았다.

측정 결과 K리그 구단은 평균 연간 500~600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다. 클럽하우스 운영 여부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경기장별 용수 사용량의 경우 구장의 크기 및 조명 잔디 관리, 빗물 재사용 여부 등 관리 방식에 따라 물 사용량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스포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이제 시작 단계로, 경기장 환경에 따라 실제 사용량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하려면 정량화된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연맹은 "향후 프로 스포츠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Scope3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수집하는 등 측정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구단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량 등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태권도로 꿈 키우다

태권도진흥재단, '희망나눔캠프'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문화적 취약계층의 태권도 수련기회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를 진행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태권도원에서 열린 희망나눔 캠프에는 장애인 보육 시설인 광주광역시 차오름 주간보호센터와 경기도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온 50명이 참가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전통 무예수련 체험과 모노레일 및 태권도 상설공연 관람을 비롯하여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캠프에 참가한 차오름 주간보호센터 정광유 센터장은 "태권도원에 초청해주어 정말 고맙다. 평소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권도 교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내년에도 우리 센터



에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태권도진흥재단에 감사사를 표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태권도를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태권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태권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문화적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년 KBO 2차 드래프트 오늘 비공개로 진행

KBO리그 각 구단이 전력강화를 위해 2차 드래프트를 22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실시한다. 2차 드래프트는 리그 상향 평준화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타 구단이 각 팀마다 지정된 보호 선수를 제외하고 영입할 수 있다. 대상 선수는 정규시즌 종료일 기준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육성 군 보류 선수 등이다. 입단 1~3년차와 당해 연도 FA(해의 복귀 FA 포함), 외국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명은 3라운드로 실시하며, 하위 3개 구단은 최대 2명의 추가 지명권이 부여된다. /뉴시스

정읍시장배 전국 복싱페스티벌 성료

이종파워복싱팀 우승 차지

'제5회 정읍시장배 전국 복싱 페스티벌'이 지난 18일 수성동 근린공원 야외 특설링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복싱 동호인들이 화합의 한마당을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정읍 동호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결과 종합우승은 이종파워복싱(전주)이 차지했고 종합2위 변교선체육관(대전)과 유성복싱(대전), 종합3



위는 최강(익산)·권투인체육관(오산), 종합단체상은 이종파워복싱이 수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3 문화공간이름 기획 프로그램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이운정 Pf.

박세훈 Bar.

이상욱 Gt.

이영신 Pf.

김경은 Sop.

이동준 대.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2023. 11. 28(화) 7:30pm

티켓: 전석 무료 (단, 예약제)
 예약: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검색
 문의: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름" ☎ 063. 223. 5323

주최·주관: 문화공간이름
 후원: 문화재단

본 공연은 (사)전주비드문화재단 2023년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